

2010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놓았던 정도”. 국내 민간단체들의 2010년도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어느 민간단체의 실무책임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된 지난해의 대북지원사업을 한 마디로 적절하게 압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실무 책임자는 동과 방지용 누수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로는 세수도 할 수 없고 밥을 짓거나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등으로 남북관계는 견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지난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투기를 통한 북한 영토 폭격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더 이상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북지원 단체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이 사실상 지난 2009년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 초에 이전과는 다른 대북지원을 구상했습니다. 평양과 남포지역에서 진행하던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사업이 정부의 제한 조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해 오던 사업이었지만, 달라진 대북지원의 지형 속에서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의 비중을 더욱 늘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상반기의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물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온성군 어린이 약 6,000명에게 전달될 빵과 콩우유가 매주 중국의 도문에서 온성군의 남양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일을 중국에서 대리하고 있는 우리 동포는 매주 트럭을 끌고 온성의 유치원을 방문, 물자를 분배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외 신의주 지역의 수재피해에 대해 옥수수 등의 식량을 전달하고 지난 10월 말에는 신의주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사업으로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올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10년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이 사업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열심히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예기치 못한 사건 등으로 전반적인 대북지원사업 자체가 위축되었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 남과 북의 교류협력 확대와 평화적인 남북통합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도적 대북지원 운동의 재개와 발전을 위해

강영식 사무총장

1995년 북한의 대기근을 계기로 시작된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은 10여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남북관계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주의 운동으로서 또한 민족화해운동으로서 꾸준히 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대북지원은 초기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위주에서 점차 농업축산,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산림녹화, 교육 분야의 개발지원성 사업들로 다양화·전문화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의 대북지원은 남북 간 신뢰형성과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어 가는데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경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정부의 5.24조치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공식적인 활동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북 간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시민사회 및 종교계의 노력으로 2010년 8월 17일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과 우리 단체 관계자의 개성방문이 이루어지고, 이어 긴급 수해지원운동이 확산되면서 점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23일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모든 대북지원 물자의 반출과 북한방문 및 접촉이 전면 중단되는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인도적 대북지원운동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도주의 원칙의 실종입니다.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인도지원에 대한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인도지원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강하게 연계시키고, 분배투명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함으로써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압박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둘째,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 갈등의 확대입니다. 그간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이념성향과는 다른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피주기론'과 '지원무용론'이 득세하면서 대북지원이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 버렸습니다. 이는 지원단체와 시민사회가 제대로 국민여론을 모아내지 못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인도주의 원칙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북지원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상실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대북지원의 방향, 원칙 등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 잣대만 존재했고 민간의 역할과 자율성이 무시됐습니다. 이로 인해 10여년 넘게 지속·발전해 온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공간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북지원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동력의 약화입니다. 급속한 남북관계의 후퇴와 북한 불안정론이 확산되면서 대북지원 무용론도 동시에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원 주체들의 눈치 보기, 그리고 후원자들의 지원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의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의 재개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인도적 대북지원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북 인도지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남북관계를 복원·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 인도지원은 평화의 측면에서 더욱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에 저희는 한국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이 지난 시기 평화를 유지·관리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었다는 것을 알리는 주창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북지원의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인도주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대북 인도지원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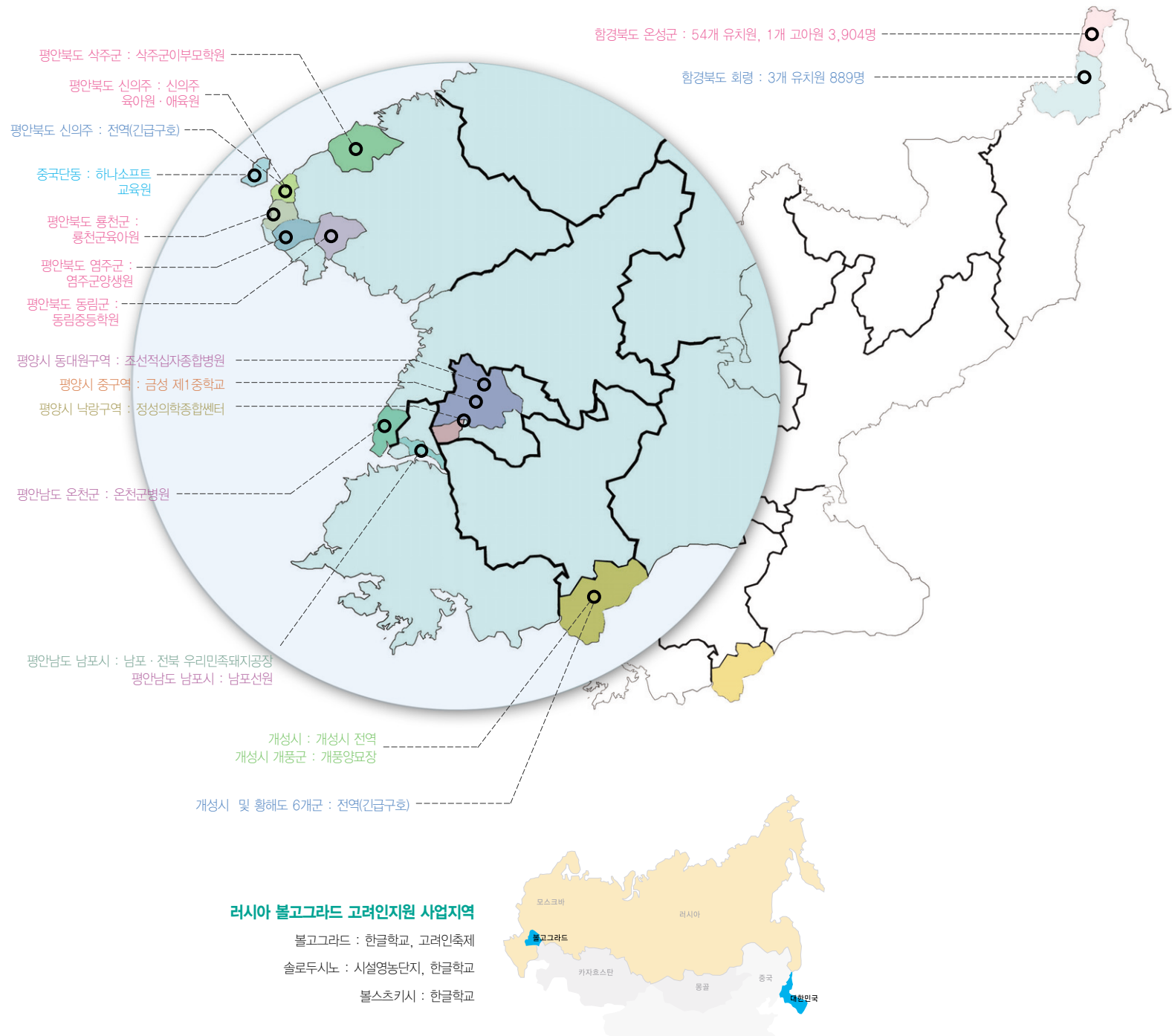
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복원과 평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대단히 정치적인 관계이기에 때로 인도적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할수록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훈을 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대북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방북과 물자지원을 민간단체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최소한의 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나 정부의 대화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임을 주창해 나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씩 없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년의 대북지원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억되는 2010년. 그 힘든 시간에 묵묵히 동행해 주셨던 여러분, 앞으로의 저희 활동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지역

● 농촌현대화 사업 ● 축산협력 사업 ● 교육지원 사업 ● 말라리아 방역사업 ● 제약공장 지원사업 ● 병원현대화사업 ● 어린이급식사업 ● IT교육사업 ● 긴급구호사업



북한 방문 현황

연도	방문횟수(회)	연인원(명)	방문지역별 (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통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2		1/2			
1999	8	29	2/13	4/10	2/6			
2000	19	79	8/48	8/20	3/11			
2001	20	106	14/85	5/17	1/4			
2002	24	212	20/203	3/7				1/2(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356	2/7				
2004	26	168	18/136	4/15	1/7	1/3	2/7	
2005	62	972	37/811	6/13	2/18	17/130		
2006	72	704	60/647		2/2	8/48	2/7	
2007	65	2,962	38/471		3/3	24/2,488		
2008	49	618	13/217	2/12	4/4	22/377	1/1	7/7(함북 온성군)
2009	25	84	9/59		4/4	2/11		10/10(함북 온성군)
2010	40	83	2/21		1/4	5/26		32/32(온성/회령)
합계	433	6,382	241/3,069	34/101	24/65	79/3,083	5/15	50/51

2007년까지는 한국 국적의 북한 방문자만 집계. 2008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재중동포들이 신의주와 통천, 함북 온성 등에 방문한 것도 통계에 포함시킴. 2009년의 경우 한국 국적자의 북한 방문 횟수는 11회에 인원은 70명임.

물자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합계	39,695,606	17,112,141	30,784,019	2,219,804	89,811,570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10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든 시간입니다



0101-0116 러시아 불고그라드, 부산대학교 자원봉사활동 (32명)
0104 평화나눔센터 토론회 '2010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과 남북 관계 전망'

0113-0114 평양돼지공장 양돈설비 및 온실 자체 지원 (인천항-남포항)

0114 개성 개풍양묘장 연탄 3,000장 및 보용품 (타이어, 농기계 수리부품 등) 지원 (개성 육로)

0114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기총회 (감사단 체로 선인)

0120 1월 상임위원회

0130-0202 우리민족 대표단 방북 (14명)



0203 함경북도 회령시 3개 유치원에 3백2십만원 상당 급식물자 및 생필품 지원 (중국 삼합-회령)
0208 2009년 회계감사
0224 제64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백5십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0315 제42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인구통계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 발표자 :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0318 러시아 불고그라드 자원봉사자 출국 (2명)
0325 「2010 대북지원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대북지원 전문가 및 대사관 참여)
0325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긴급 임시총회 : '통일부장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채택
0326 개성 개풍양묘장 모목종자, 양묘장 자체 지원 (개성육로)
0326 남포산원 공기름 15톤 지원 (단동-신의주)
0329 함경북도 회령시 3개 유치원 3백3십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회령)
0331-0407 농업·축산 기술진 평양 방북 (7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1201 연평도 민간인 사망자 조문
1229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원로 및 지도자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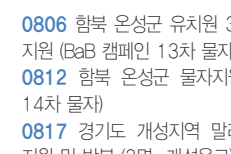
1110 제66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1112 평화나눔센터 전문가 토론회 (대회의실)
· 주제 : 국제금융기구와 개발보고서 -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이계우 (KDI 국제대학원 교수)
1115-1117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국내외 전문가 70여명 참석-비공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공개회의) / 섬머셋팔레스호텔 (비공개회의)
1123 2010년 후원의 밤 '희내래 우리민족' 개최 (서강대 곤자가컨벤션)
1123 연평도 사건으로 모든 자원물자의 반출 중단
1124 일본 '단비방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원회 발족식 (홍사단 강당)
1129-1130 평화군축박람회 참가 (국회의원회관 1층)



1001 제47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 천안함 이후, 위기의 한중관계 : 현상과 실제
· 발표자 :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1009 제9회 '2010년 불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 장소 : 러시아 불고그라드 국립기술대학교 강당
· 참석 : 고려인 동포 및 다민족 대표단 등 600여명
1011 15주년 백색발간위원회 3차 회의
1015 개성지역 말라리아 2차 방역물자 지원 및 기술진 4명 개성 방북
1029 신의주 수재물자 옥수수 700톤 지원 및 대표단 4명 방북



0901 함북 회령시 3개 유치원에 3백60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0907 15주년 백색발간위원회 2차 회의
0916 1차 대북 수재 구호물자 밀가루 400톤 지원 및 대표단 5명 개성 방북
0916 제46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 주제 :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은 어디로? - 북한과 주변 정세 전망
· 발표자 : 박형중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17 함북 온성군 유치원 3,876명 급식자재 및 생필품 지원
0920 인천시 대북 수재지원 협약식 (인천시청)
0920 함북 온성군 9월 2차 급식자재 지원
0927 함북 온성군 9월 3차 급식자재 지원
0928 9월 상임위원회 (렉싱턴호텔)
0928 인천시 기관단체장모임(인화회) 기금 전달식 (3군수 지원사령부)



0806 함북 온성군 유치원 3,428명에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3차 물자)
0812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14차 물자)
0817 경기도 개성지역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및 방북 (3명, 개성육로)
0827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15차 물자)
0827 '민중화해와평화를위한 종교인모임' 밀가루 300톤 지원,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0402 함경북도 회령시 3개 유치원 3백30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회령)
0405 BaB위원회 (공동위원장 영담,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1차 회의
0409 함경북도 온성군 105개 유치원에 선물상자 6,600개 (3천3백만원 상당) 및 5개 유치원에 6백5십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도문-온성군)
0423 2010년 1차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집중토론
· 주제 : 백낙청의 '대북포용정책 버전 2.0'을 논한다
· 발표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세교연구소 소장)
0426 제43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 주제 : 생태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개발협력
· 발표자 : 유정길 (एको부터다 대표)
0427 4월 상임위원회
0428-0429 개성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양묘장 기술협의 개성 방문 (5명)
0428 함북 회령시 3개 유치원에 3백30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회령)
0430 함북 온성군 5개 유치원에 6백50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중국 도문-온성)



0507 함북 온성군 11개 유치원에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차 물자 / 중국 도문-온성)
0514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2차 물자 / 중국 도문-온성)
0517 시민사회통일론 2차 집중토론회
· 주제 : "북한 급변사태론," 어떻게 볼 것인가?
· 발표 : 정영철 (서강대 교수)
0519 함북 회령시 3개 유치원 3백30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0521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3차 물자 / 중국 도문-온성군)
0524 제44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 주제 :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 발표자 : 류석진 (서강대 정외과 교수)
0525-0528 1차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23명)

0528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4차 물자 / 중국 도문-온성)



0604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5차 물자 / 중국 도문-온성)
0604-0605 사무처 워크숍 (DMZ 생명평화동산)
0609-0611 2차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3명)
0611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6차 물자 / 중국 도문-온성)
0611 6월 상임위원회 (렉싱턴호텔)
0615-0618 3차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29명)
0616 '2010 대북지원 국제포럼'
· 주제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의 경험과 교훈
· 발표자 : 미국국제개발처(USAID) 존 브라우저 부총재보
0618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7차 물자)
0622 함북 회령시 3개 유치원 3백30만원 상당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회령)
0622 <북민협> 대북 인도지원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프레스센터)
0623-0629 북한어린이돕기 기금 마련 '평화의 손길' 개최
· 장소 : 인사동 포토하우스 1층 전시실 (02-734-7555)
· 주최 : (주)다이름
0624 함북 온성군 물자지원 (BaB 캠페인 8차 물자)
0630 남포시 남포산원 9천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 (인천-남포)



다시 평화의 싹을 틔우기 위해...
오늘도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남측의 동포애 차원의 식량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 2010년 10월 29일 <신의주시량정사업소 해방식량공급소> 김순옥 소장

2010년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전체 필요량의 20%에 해당하는 110만 톤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WFP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10명 중 4명꼴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7, 8월 한반도를 강타한 수해는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종교계, 지자체 등과 함께 힘을 합쳐 긴급식량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종교인 모임 밀가루 300톤 지원 : 8월 27일, 개성 육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의 종교인 528명은 6월 17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남북정상회담과 인도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5.24 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함으로써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돕고 나아가 대북 인도지원의 물꼬를 틔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그 뜻을 같이 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북한 개성에 밀가루를 전달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7일 5개 종단 종교인 9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이 개성을 방문하여 밀가루 300톤을 북한 개성시(개풍군 포함), 황해북도 장풍군, 금천군과 황해남도 배천군, 청단군, 연안군 등 총 6개 지역의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전달하였습니다.



9월 16일 긴급 식량지원



맨위 신의주에 지원한 옥수수
아래 신의주 해방식량공급소에 분배된 옥수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JTS 밀가루 400톤 지원 : 9월 16일, 개성 육로

개성은 신의주와 더불어 가장 큰 수재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에 9월 16일 식량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개성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식량인 밀가루 4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긴급 식량 지원을 위해 마련된 밀가루 400톤 중 300톤은 지자체의 대북 인도지원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나머지 100톤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JTS가 마련했습니다.

지원에 앞서 같은 날 밀가루 130톤을 지원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임진각 주차장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천시 옥수수 700톤 지원 : 9월 29일, 중국 단둥 - 북한 신의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성뿐만 아니라 2010년 수해피해가 가장 컸던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식량으로 옥수수 700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마른 옥수수 알갱이는 다양한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여 북측의 반응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후원으로 마련한 옥수수는 중국에서 구매하여 중국 단둥-신의주간 육로를 통해 트럭 및 화물 열차를 이용하여 전달했습니다. 추석 직전인 9월 29일 25톤 트럭 6대 분량의 옥수수 150톤 전달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북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4명으로 구성된 인도요원이 2005년 4월 이후 민간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신의주에 들어가 지원된 물자를 확인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신의주시 량정사업소 해방식량공급소」를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의주시량정사업소 해방식량공급소」 김순옥 소장은

“해방식량공급소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직접 배급하는 세포 단위로 성인기준 1인당 하루 350g의 옥수수를 공급하며, 관할지역 주민 1인당 총 10kg씩 돌아갈 수 있도록 옥수수를 배급하고 있습니다...남측의 동포애 차원의 식량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라며 현장을 방문한 대표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 2010. 10. 29. 신의주

“북한어린이에게 BaB을 나눕니다. 희망을 키웁니다!”

2010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2010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이하 BaB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BaB 캠페인은 함경북도 온성군 105개 유치원과 1개 고아원 6,562명, 화령시 3개 유치원 88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용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입니다.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월 1만원의 후원금(연 12만원)은 북한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개의 빵과 콩우유가루, 1년에 2차례 선물상자와 생필품을 보냅니다.

BaB 캠페인 :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 지원

2010년 초, 북한 어린이들의 효과적인 영양상태 개선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에 대해 북측의 담당기관인 함경북도 온성군인민위원회 해외동포영접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3월 29일, 온성군 105개 전체 유치원과 1개 고아원 6,562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용 빵과 콩우유가루 등 생필품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 체결 후 <2010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이 희망이다’>를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설(www.bab.or.kr) 및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모금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재석광고연구소에서는 광고제작을 후원하여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BaB캠페인에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와 동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7월 29일)하였고 12월 기준,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갈릴리교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려정보통신,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백병원, 석왕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등 9개 기관 및 단체, 249명의 개인 후원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맨위 5월 28일 풍계리 대가정세대(고아원) 방문
아래 6월 24일 상화구유치원 방문



인천시, 북한어린이지원사업 시동

인천시,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송영길 인천시장이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함경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표 영담스님과 함께 협약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2010년 7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후원속에 2010년에는 54개 유치원, 1개 고아원 3,904명의 어린이에게 총 26회, 1억 8천만원 상당의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을 매주 중국 도문 -> 함북 남양 간 세관을 통해 재중동포인 중국 실무자가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부에서 모금하여 후원하는 함경북도 화령시 3개 유치원 889명의 어린이에게 총 7회, 2천 3백만원 상당의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BaB 캠페인 : 나눔이 전달되는 현장 방문

2010년 5월 25일과 6월 15일, 온성군 4개 유치원 어린이 300명을 후원하고 있는 (주)고려정보통신 임직원 50여명은 3박 4일간 두차례에 걸쳐 중국 연변을 방문하였습니다.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에게 전달되는 빵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식하고 중국 도문 세관을 방문하여 온성으로 물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연변의 역사유적지(윤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등)방문과 백두산을 등반하였습니다.

중국 연변 방문을 통해 분단과 역사를 알아보고 나눔에서 전달까지의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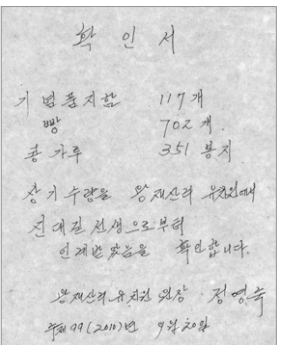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중소기업, 종교기관, 실향민, 어린학생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신 이 사업은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두 달 여간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아이들에게 대한 걱정과 격려의 전화도 이어졌고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속되었습니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는 함경북도 온성군 105개 유치원과 1개 고아원, 총 6,562명의 어린이 모두에게 빵과 콩우유가루, 생필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 중국 연변을 방문하는 방문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후원자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확인서

번호	물품명	수량
1	대동내민	6,600 장
2	시막	6,600 장
3	침막	6,600 장
4	지솔	6,600 개

상기물품을 전대길 선배으로부터 영계방문함을 확인합니다.
온성군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 책임부원 권순철 수료. 김남태
주제 99(2010)년 9월 17일



맨위 9월 17일 인수 확인서
위 9월 20일 인수 확인서
가운데 급식으로 지원되는 빵
아래 급식으로 지원되는 콩우유가루



이요셉 고려정보통신 홍보부 사원의 '연변방문기' 중

“북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변계선(邊界線)’이라고 쓰인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에서는 눈에 보이게 가까운 북한에 갈 수 없는 현실과 분단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소식지 제73호. 12p

“건강하고 푸르른 개성을 위해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함께합니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부터 개성지역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 사업은 북녘산하를 푸르게 하기 위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과 개성 및 인근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나뉘어 진행했습니다.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휴전선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측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의과학원 기생충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경우 환자발생수가 2007에 비해 2008년에는 50%, 2009년에는 40%정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0년 공동방역사업은 황해북도 개성, 장풍, 토산, 금천 등 개성과 그 인근 지역 50만명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병에 대한 진단능력 향상, 임신부 예방, 효과적인 방제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말라리아 진단키트, 임신부용 예방약, 방충망(모기기피제 처리), 모기향 등을 지원하기로 북측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5.24조치로 우여곡절 끝에 8월 중순부터 물자를 개성에 전달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6-9월 사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5월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하지만 물자를 제때 보내지 못하였으니 방제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이는 남쪽 환자 발생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북측의 전성순 기생충연구소 실장도 “물자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말라리아 모기 발생 시기에 제때 사용할 수 없어 방역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2010년 방역약품 지원물자

종류	수량	종류	수량
모기유충 살충제	1톤	임산부용 예방약	45,000정
말라리아 진단키트	120,000개	모기향	15,000통
방충망	122,000m ²		

방역협의 방북

일시	장소	방북인원	협의내용
4월 29일	개성	5명	2009년 방역사업 평가와 2010년 사업협의
8월 17일	개성	3명	방역물자전달과 방역협의
10월 15일	개성	4명	방역물자 전달과 방역협의



맨위 8월 17일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가운데 개성에 하역된 말라리아 방역물자 아래 남북 말라리아 방역 협의

말라리아 공동방역은 남과 북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어떤 경우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 지역도 황해남도 강원도 등 휴전선 접경지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공동 기초연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측에 대한 기초연구 설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박재원(가천의대 교수, WHO 말라리아 방역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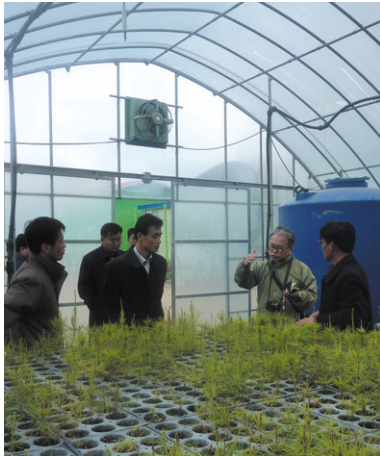
“북측의 말라리아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외부접근이 쉽지 않기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책 변화등 국제조류에는 밝지 못하다. 그러나 말라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은 매우 뛰어났다. 사업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남측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수반된다면 방역지원사업의 수행주체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개성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

2007년부터 시작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4년의 사업 기간을 거치며 양묘 구역이 5.5ha에서 11ha로 확대되었고 키우는 묘목도 90만본 가까이 된다. 수종도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자문을 맡은 건국대 김종진 교수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의 양묘장을 만든 것은 매우 성공적이다. 비록 기술부족, 적정 지원시기의 유실, 관리부족 등으로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실패는 되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또 양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수종을 대상으로 양묘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묘장을 소중한 일터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풍양묘장에 자라고 있는 백합나무



개풍양묘장 온실 내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양묘자재와 묘목, 종자를 지원 하면서 묘목생산과 양묘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하자고 북측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파행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속품과 소모품이 바닥난 농 기계는 가동되지 못했고 부품이 망가져 수리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온실양묘도 정상적으로 꾸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개성과 황해도 일대에 내린 큰비 로 하천이 범람하여 봄에 심은 은행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종자가 싹을 틔우지 못하였고, 기술진 방북도 겨우 두 차례에 그치면서 양묘기술 전수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2010년 지원물자(2010년 3월)

종류	수량	내역
종자	1290kg	스트로브잣나무, 밤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은행나무,
묘목	45만본	백합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이팝나무, 낙엽송
양묘자재	21종류 300kg	농약, 비료, 상토, 농기구 등
농기계부품	32종류 47점	트랙터, 경운기 등의 부속품
연탄	3000장	양묘장 관리실 보온용

2010년 방북 현황

시기	인원	목적
4월30일	3명	지원물자 확인과 양묘장 관리현황 파악, 양묘 기술협의
10월15일	3명	양묘장 관리현황 파악과 양묘 기술협의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남북 양측 전문가의 노력, 그리고 양묘장 직원들의 헌신으로 양묘장의 묘목생산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묘장 성원들 은 침수된 제방을 다시 쌓고 자체적으로 응용한 양묘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묘기술 전수에 힘쓰는 한편 북측 환경에 맞는 수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개풍양묘장 강승호 지배인은

“개풍양묘장의 수종과 묘목에 대한 평가가 높아 인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생산도 되기 전에 묘목을 달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측의 경기도와 협력하여 양묘장을 꾸렸고 남측에서 지원 한 수종이 많이 있기에 인기가 좋습니다.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14만본 정도의 묘목을 생 산하여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 장풍, 금천, 배천, 청단, 서흥 지역의 임야와 소학교, 기업소 등지에 조 립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계절보다 일찍 품질 좋은 남새를 맛볼 수 있어서 우리농장원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 2010년 4월 2일 평양돼지공장 박호섭 남새 작업반장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으로 인해 2010년 농업·축산 지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는 기존 진행했던 사업들 을 일차로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의 벼농사 협력 사업 기반과 5,948㎡(1,800평) 규모의 시설채소 재 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평양 대성구역 채소육묘단지 조성 및 채소 재배 지원 사업



북한 주민의 1인당 연간 채소 소비량은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의 권장량인 73kg의 절반 정도인 45kg에 불과합니다. 이 는 남한 주민의 채소 소비량인 150kg의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채소에 함유돼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가 부족하 면 영양 불균형과 함께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북측 주민들, 특히 영유아들을 위해 평양 대성구역 채소 육묘단지 조성 및 채소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은 방북 제한 조치로 남측 기술진이 방북하지 못하고, 북측 인력이 스스로 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3월 현장을 방문한 대표단은 육묘장용 연동온실(600평)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북녘 동포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농업·축 산지원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평양 돼지공장 농축산 협력사업 : 순환형 농축산단지 조성



3개년 계획으로 2009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중인 이 사 업은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리에 축산, 곡물농사, 채소농사가 결 합된 순환형 종합 농축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2009년 정부의 반출 및 방북 제한 조치로 진행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다가 2010년 초, 근 1년간 인천항에 발이 묶여있던 지원 물자 를 북에 전달하였고 3월 31일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남측 기술진의 현 지 사업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10개월간 건설이 중단되었지만 신축 돈사 건설 현장은 잘 보존돼 있었고, 현지 북측 농장원들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었습니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문한 남측 기술진과 현지 북측 인력은 정해진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분야에서는 연간 돼지 1,0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신축 양돈장 건설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기존 양돈장 2개동에 대한 개보수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서는 100ha 규



현장에서 함께 한 북측의 박호섭 남새 작업반장은

“계절보다 일찍 품질 좋은 남새를 맛볼 수 있어서 우리 농장원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온실에서 연간 4, 5 회전을 통해 신선한 남새를 생산·공급할 계획입니다”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 2010. 4. 2. 평양 돼지공장 남새 온실

“남포산원의 산모들은 외래병동의 수술장 설치를 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는 한 국가의 건강과 복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취약해진 북한의 보건의료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크게 병원현대화사업과 제약분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보건의료지원사업



남포산원 의약품 지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2010년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평양조선적십자병원의 현대화와 정성의학종합센터의 동물실험실 설치, 남포산원의 외래병동 신축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2010년 상반기의 천안함 사건과 하반기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는 임상검사소 개보수와 구강병원의 보철실/교정실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북 관계 악화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성의학종합센터 지원사업은 수액제 등 질 좋은 기초 의약품 생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수액약품공장,

알약약품공장, 품질관리실 설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2009년부터는 수액제의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실 설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냉각 등으로 관련 물자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성측이 자체적으로 건물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 1월 말 남측 기술진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



신축 중인 남포산원 외래병동

포시의 산모뿐만 아니라 주변 군 지역 산모들도 이용하는 남포산원은 사실상 3차급에 해당하는 주요 병원입니다. 건설 중인 외래병동은 수술장과 해산실, 회복실 등을 갖추며 기존의 낡은 시설을 대체하게 될

니다. 하지만 당초 3개년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건설 물자 반출이 제한되면서 3층의 골조 공사만 마무리된 채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 2월과 6월에 각각 2,300만원 상당의 식용유와 9,000만원 상당의 의약품(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증)을 남포산원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년째 중단된 사업들의 재개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북 의료지원 강화하면 통일비용 절감” 문옥륜 교수 “지원 시기 빠를 수록 바람직”

최근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중략) 문옥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 온스의 예방은 한 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며 “조기에 예방할수록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대북 의료지원은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2010년 9월 17일, 의학신문

“남북관계와 대북지원 논의 활성화, 시민사회의 공론형성에 힘을 쏟고있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인도주의·남북통합·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 마련 및 공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포럼 및 토론회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책포럼, 토론회 및 라운드테이블을 8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천안함 침몰 등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와 관련한 정세 분석을 위해 정책포럼을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남북관계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지원이 중단되었지만 향후 추진될 개발지원을 위한 논의의 지속성을 위해 이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사업

2008년~2009년 사이에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인 ‘북한 개발지원 연구 사업’을 종료한 이후, 2010년에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지원으로 ‘2010 북한개발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북한의 개발전략 모델과 개발협력 정책 등을 제시하여 중장기 북한개발지원사업의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2011년 상반기 출판될 예정입니다.

연대활동

지난 20년간 민간통일운동이 견지해 온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통일 담론을 시대 변화에 맞춰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집중토론’을 2010년 4월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토론은 민화협 통일교육위원회, 세교연구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포럼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각 분야별 대북지원 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정책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

항목	일시	주제
제7차 라운드테이블	1월 4일	2010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 : 북한 동향 및 남북관계 전망
제42회 정책포럼	3월 15일	북한의 인구와 자료 : 1993년과 2008년 센서스를 중심으로
제43회 정책포럼	4월 26일	생태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개발협력
제44회 정책포럼	5월 24일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제45회 정책포럼	7월 6일	독일 통일의 재조명과 남북관계에 대한 제언
제46회 정책포럼	9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당대표자회 평가
제47회 정책포럼	10월 1일	천안함 이후 위기의 한중 관계 : 현상과 실제
제21차 정책토론회	11월12일	대북 개발지원과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맨위 1월 4일 북한공동신년사설 토론회
가운데 7월 6일 정책포럼
아래 5월 24일 경제포럼

“국내외 대북지원 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지원사업의 모습을 고민합니다”

평화나눔센터는 대북지원·개발협력·평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는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북지원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만들어질 대북 국제개발협력체에서 한국(및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북지원 국제포럼 : 3월, 6월 두 차례 진행

2010년 3월 2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독일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대북지원 국제포럼이 호주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는 국내외 대북지원 전문가 및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독일 저먼에그로액션(German Agro Action)이 각각 한국, 외국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대표하여 사업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대북지원 단체들이 서로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6월 16일에는 2008년~2009년 진행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브라우저 부총재보를 초청, 2차 국제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포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북지원 민간단체 실무자 및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브라우저 부총재보의 발표와 참석자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 정부와 미국 대북지원 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 :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 개발 협력

현재 120여개가 넘는 국내외 기관들이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의 활동을 제대로 알지 못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기관 및 전문가들의 소통의 장인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회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그리고 미국 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주한 EU 대사관이 후원했습니다. 첫 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개회의에는 15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16~17일 양일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는 UN FAO의 세키토레코 북한 대표를 비롯해 북미, 유럽, 아시아, 한국의 대북지원 NGO와 학자들, 중국과 베트남의 개발전문가들, 그리고 10여개 이상의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맨위 3월 25일 국제포럼
가운데 6월 16일 국제포럼
아래 11월 16일 국제회의

2010년 정책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

일시	주제	비고
15일(월)	〈오프닝세션〉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발협력 경험	공개 회의
16일(화)	〈세션 1〉 기구별 대북지원 활동 사례와 향후 과제	비공개 회의
	〈세션 2〉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향후 전망	
〈세션 3〉 중국·베트남에서의 국제 NGO의 개발협력과 북한에 대한 함의		
17일(수)	〈세션 4〉 북한과의 국제개발협력 증진 방안	



11월 16일 국제회의

올 해 회의의 성과라고 한다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북지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는 것과 더불어, 사회주의권 발전상의 모범으로 얘기되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듣고 이를 어떻게 북한 상황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매년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그 중간에 소규모의 포럼을 배치하여 국내외 대북지원 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북한 개발협력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향후 남북 관계가 다시금 복원될 때 즈음에는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지원사업과 북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북측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FAO 관계자 “北, 식량 140만톤.비료 70만톤 부족” “식량지원 및 농기계 등 농업생산력 증대 위한 지원 필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올 11월 말경 발표될 ‘곡물 및 식량공급평가’에서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2009년에 비해 올해 곡물 140만톤, 밀 5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2회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빅토리아 세키토레코 FAO 중국.북한.몽골사무소 대표는 15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통해 “만연한 농업부문 투자(비료 등) 부족과 쌀 생산지의 홍수피해로 2009년에 비해 곡물생산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정부, 북한과 대화해야”

빅토리아 대표는 “FAO는 지금까지 봄 보리 종자를 제공했다. 시금치, 요소비료 등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출연국과 대화를 한다. 출연기관들이 스스로 북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농업에서 인도주의적 원조와 개발원조는 구분하기 힘들다. 지속적으로 북한과 활동하고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사, 사진 출처: 통일뉴스, 2010년 11월 15일

“함께한 10년의 세월!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희망을 키웁니다”

구 소련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 내전 등 여러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각지의 고려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볼고그라드에 재이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은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볼고그라드 지원사업은 생활, 의료 등 긴급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 경제기반 조성사업,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 등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농장 : 시설농업교육 체험과 선진 농업의 교육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고려인들에게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시설영농기술을 전수하여 재정착을 위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니콜라예브스키군의 솔로두쉬노와 레닌스키군에 각각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하여 시설농업 체험 및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 시절 농업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던 고려인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겨울이 길어 과채류 값이 비싼 현실에 맞추어 토마토, 오이 등의 시설농업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을 볼고그라드 현지에 파견하여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10명의 고려인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시설농업 이론 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의 농업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왼쪽 볼고그라드 비닐하우스농장 전경 오른쪽 비닐하우스 설치 중인 기술진들



맨위 10월 9일 고려인축제
아래 청년모임 미리내

볼고그라드 교육·문화 사업 : 한글·문화교실

민족정체성회복 및 우리말과 문화를 체득하게 하고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글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교실에서는 한국어 초급, 중급과정을 중심으로 약 50여명의 동포학생과 현지인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모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포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고려인 학생을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 한국내에서의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 현지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볼고그라드 현지 봉사활동을 조직하여 고려인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음악, 미술, 태권도, 시설농장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볼고그라드 현지 청년모임인 <미리내>와 풍물패 <천둥>이 결성되어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등 청년문화사업, 한국문화 홍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회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 주제 “한글과 우리문화”

제9회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는 2010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볼고그라드 종합기술대학교 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축제에서는 주·시정부, 타민족대표 등의 축사와 한글학교 학생들의 태권도시범, 사물놀이공연, 부채춤 등 다양한 문화 공연과 타민족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는 볼고그라드 유일의 소수민족 축제로 지역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축제는 한글날에 맞추어, 한글에 대한 설명과 한글의 생성원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선 보였고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 시 낭송 등을 통해 우리말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생활·의료지원

생활 의료 지원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독거노인들과 동절기 동안 부모들이 대도시로 돈벌이를 나간 조손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마을 방문 결과와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 주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은 의약품 지원이 주를 이루며, 생활지원의 경우 부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고려인 축제가 10회를 맞이합니다. 제 10회 고려인 축제는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증대하여 볼고그라드에 대한 한국 내의 관심을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농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기술전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볼고그라드 고려인 동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 소련 붕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고려인 밀집지역을 찾아 사업의 장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0년의 경험! 10년의 미래”

여러모로 어려운 지역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남북화해, 대북 인도지원운동을 착실히 진행해 온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며 '사단법인 우리민족'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품은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어린이 지원사업 : 헌교과서 수집운동

민간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 한 2010년이었지만,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 본부와와의 협력을 통해 매월 1회씩 회령시 어린이들에게 급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불통의 시대에 민간교류의 맥을 이어가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자원재활용 연중캠페인을 통해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광주전남 400여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헌 교과서를 모으는 실천운동으로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북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학생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 어린이 통일역사기행

2010년 8월 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광주전남 어린이 통일역사기행은 '북한어린이돕기 헌교과서 수집운동'에 참여한 광주전남 어린이들과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기행에는 광주전남 지역 10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여 강화도와



통일역사기행

DMZ 지역(파주 임진각 등)을 직접 답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 어린이들은 분단의 아픔과 민족화해,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1세기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운동'... 그리고 잠정중단!



통일쌀보내기 모금 운동

북한 수재 지원을 계기로 광주에서도 사회 각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일쌀보내기 광주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우리민족)이 실무주관단체가 되어 모금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24일 개성을 통해 통일쌀 100톤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던 계획은 11월 23일 연평도 사태가 발발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모금운동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통일쌀은 민간의 대북지원이 재개되는 즉시 북측 동포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북한어린이돕기 후원회

11월 19일,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겸한 북한어린이돕기 후원의 밤을 무각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원자들이 참석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녘어린이, 남녘어린이, 모두 통일 한반도의 희망입니다”

2010년 남북 관계 경색은 부산경남 지역의 북한동포돕기운동 또한 위축시켰습니다. 비록 힘들게 전개되었지만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에도 지역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의 확산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북녘 어린이 지원사업 : 겨울의류 지원 및 기장군과의 대북지원 협약



기장군 협약식

2010년 부산경남지역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1월에는 예씨 등의 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어린이 겨울의류(털장갑, 털목도리, 양말 등)를 지원받아 이를 북한 유치원과 탁아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기장군과 함께 북녘 산모와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기장미역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차 미역 전달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여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로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앞으로 미역을 비롯한 기장 지역 농수산물을 북녘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 되는대로 연기되었던 미역 전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녘어린이 돕기 학교 저탄소 녹색운동

종이 1톤의 재활용은 30년 된 원목 17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펄프수입대체 효과 등 환경을 살리기 위해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5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된



저탄소 녹색운동

헌 교과서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학교 녹색운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1월에는 고등학교, 12월에는 겨울방학을 맞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헌 교과서 수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폐지 판매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북녘 어린이 돕기사업에 쓰여 졌습니다.

부산시 북녘 밀가루 지원 계획

지난 7-8월, 수마가 북한 전역을 휩쓸고 갔습니다. 신의주부터 개성에 이르기까지 수재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부산경남 지부는 8월 북녘의 신의주 등 수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긴급식량(밀가루)지원을 결의하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산시와는 11월 1차 긴급식량 지원을 목표로 시 차원의 지원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 중 남북관계 악화로 전체 수해지원 물자에 대한 반출이 어려워지면서 밀가루 지원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가 복원되어 곧 닥칠 춘곡기에 이 밀가루가 북한 주민들의 소중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카즘,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KASM, 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

카즘(KASM)은 북한 주민들을 비롯해 자연재해와 인재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 동포들을 돕는 모금활동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북한 식량 원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북한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 매년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가상 6자회담 오른쪽 리더십프로그램 참여 학생들

2010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한국과 재중동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워싱턴 D.C.내 주요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 방문, 각계 전문가 및 지도자들의 특강, 토론, 멘토링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국제개발기구 및 비영리기관의 영향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그리고 중국의 연변과기대에서 선발된 12명의 학부, 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제8회 워싱턴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주요기관 방문, 특강시리즈, 멘토링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방문한 주요기관으로는 세계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회의사당, 맨스필드재단 등 15개의 정부, 비정부 기구들이 포함되며, 4회에 걸친 특강시리즈에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미국 워싱턴의 주요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과 대학생들의 대화의 장으로 꾸며져 참여 학생들이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워싱턴 내 빈민 구호 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워싱턴리더십프로그램은 한국 및 재중동포 학생들이 글로벌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차세대 지도자로서 자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11년 여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 학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미국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가 가져간 것은 강냉이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꿈입니다”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는 사랑 운동’을 모토로 1997년 11월, 55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초기 이모작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밀가루, 강냉이 등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용 신발, 자전거, 지붕 자재 등 다양한 물자를 복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왼쪽 미림학원 학생들 오른쪽 평양애육원 방문

취약계층을 위한 강냉이 60톤 및 생필품 지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0년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활동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식량지원은 달라스 본부 설립 이래 꾸준히 진행된 주력 사업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2010년에도 강냉이 60톤을 북한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라스 본부는 식량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냉이 국수 공장 방문 및 지원된 식량의 육아원, 학교로의 전달과정 참관을 약속받았으며 실제 이들 시설을 방문하여 물자 인수를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달라스 본부는 평양 미림 학원에 양말 750켤레와 조미료를 전달했습니다. 기증 과정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미주 동포들의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고아원 시설인 평양 애육원에 50여 통의 김치 저장 용기와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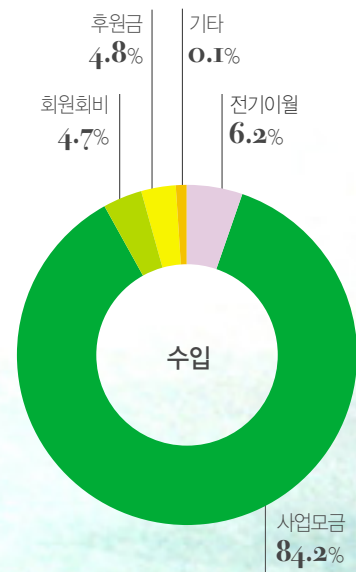
를 지원하고 애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애육원생들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애육원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고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꾸준히 지원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2010년은 분단 이후 전쟁의 위험이 가장 최고조에 달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더 나아가 비난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결코 북한 취약계층들이 굶주려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011년에도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을 비롯한 북의 여러 도시에 강냉이 국수 식당을 세워나가는 한편 식량지원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10 결산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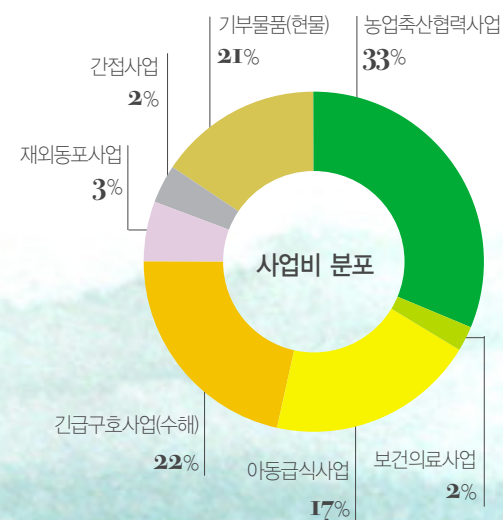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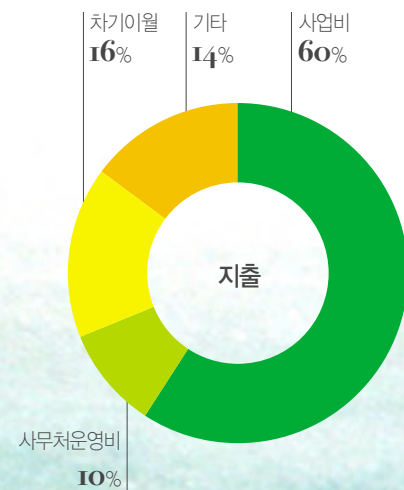
수입 (단위 : 원)

항목	금액
전기이월	224,151,873
모금	3,028,552,198
농업축산협력사업	1,411,406,100
보건의료협력사업	9,753,207
취약계층지원사업	596,331,850
긴급구호지원사업(수해)	478,450,950
재외동포지원사업	52,850,100
일반모금	36,567,317
기부물품(현물)	443,192,674
운영비	339,390,616
회원회비	167,633,470
후원금	171,757,146
기타수입	5,499,637
합계	3,597,594,324



지출 (단위 : 원)

항목	금액
사업비	2,154,828,140
농업축산협력사업비	715,254,211
보건의료협력사업비	55,640,812
취약계층지원사업비	357,829,402
긴급구호지원사업비(수해)	470,650,094
재외동포지원사업비	63,651,383
간접사업비(정책연구사업비 등)	48,609,564
기부물품(현물)	443,192,674
운영비	365,788,871
기타지출	504,950,920
차기이월	572,026,393
합계	3,597,594,3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 담 (불교방송 이사장)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이일영 (R(코리아) 상임의장)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공동대표
 고희선 (농우바이오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원철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 (을지대학교 총장)
 윤장현 (광주전남본부 이사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용선 (前 운영위원장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 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 범어사 주지)
 정의화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 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법류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
 홍상영 사업국장
 서명희 부장
 이예정 부장
 손종도 부장
 이불철 부장
 황재성 부장
 오형윤 간사

광주전남지부

고문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 (소화자매원 이사장)

이사장
 윤장현 (광주리더십센터 이사장, 아이안과 원장)

사무처
 김영삼 사무처장
 이재봉 사업국장
 박효정 간사

부산경남지부

상임대표
 정 여 (범어사 주지)

상임공동대표
 이 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현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 대표이사)

공동대표
 이향순
 조기종 (조기종 치과의원)
 주병호
 차상조 (로덴 치과의원)

사무처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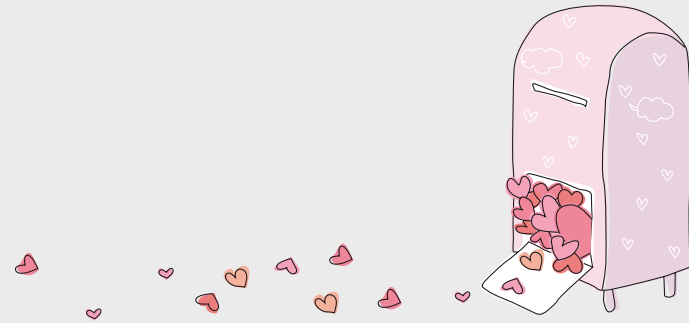
러시아볼고그라드 사무소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르 부회장
 박엘레나 총무
 류슬라브 감사

시설농업현장사무소
 김아파나시, 김알렉세이 (술도두시노지역 담당)
 김싸샤, 이아나폴리(레닌스키지역 담당)

당신이 희망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유)명건설 (유)세화관광여행사 (유)스마일기획건설 (주)고려정보통신 (주)대용파마텍 (주)디에이블커머스 (주)리치스톤 (주)모아나 (주)삼성파워일렉트릭 (주)세진산업개발 (주)신도데이터통신 (주)여행이야기 (주)지담종합건축사 (주)창대산업 (주)창이엔지 (주)코러스 노상훈 (주)클린피에스엠 (주)한일
 감복초 강경중 강경표 강경현 강남준 강달호 강대균 강대영 강대현 강동완 강동한 강동혁 강문구 강병수 강병태 강삼용 강선미 강성부 강성구 강승원 강승희 강신 강신우 강신형 강원호 강은향 강익범 강인철 강인호 강정미 강정음 강준호 강지영 강채원 강철희 강춘원 강태임 강태호 강필희 강혜경 강혜영 강희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진TRM 경희대생협고 권석 고기철 고녕일 고명갑 고명진 고봉균 고상일 고석주 고세랑 고수석 고승일 고승진 고영록 고영삼 고영아 고유민 고이석 고인해 고재철 고정한 고진규 고진아 고창훈 고천숙 고천심 고철호 고희갑 공용택 공은영 공희승 광연실 광명한 광정란 광현 광혜진 구국모 구수영 구영주 구은경 구정희 구종모 구중우 국민호 국혁 권병오 권보미 권숙희 권승연 권영노 권영은 권오근 권오훈 권은현 권익산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권차현 권철성 권혁민 권혁선 권현우 권현진 금강산닷컴(주) 금강LFB 금희식 길기관 길주중학교 길창배 김갑룡 김갑수 김갑식 김강민 김강훈 김강희 김경년 김경란 김경재 김경태 김경표 김경하 김경화 김계순 김공련 김판식 김광국 김광식 김광아 김광열 김광진 김구 김구철 김구현 김구진 김근섭 김근순 김근우 김금순·이호준 김금평 김기곤 김기도 김기동 김기령 김기영 김기용 김기원 김기는 김기판 김길옥 김길자 김길철 김길태 김나눔 김나홍 김남용 김당 김대관 김대성 김대영 김덕수 김도규 김동광 김동규 김동근 김동림 김동분 김동우 김동천 김동현 김동환 김동희 김두환 김라경 김만수 김만진 김만태 김만호 김맹기 김명숙 김명신 김명연 김명진 김무홍 김문아 김문혁 김미홍 김민곤 김민성 김민제 김방규 김병갑 김병구 김병규 김병수 김병준 김보연 김부도 김삼수 김삼택 김상근 김상득 김상범 김상수 김상식 김상용 김상운 김상현 김상희 김석진 김석향 김선경 김선리 김선영 김선미 김선배 김선숙 김선영 김선창 김선희 김설자 김성건 김성도 김성렬 김성봉 김성수 김성숙 김성우 김성욱 김성재 김성진 김성철 김성태 김성해 김성희 김세권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암 김순남 김순옥 김순한 김승훈 김씨들 김양수 김양숙 김연옥 김연지 김영관 김영규 김영근 김영래 김영모 김영미 김영수 김영숙 김영실 김영재 김영주 김영표 김영호 김옥영 김완배 김완수 김용관 김용기 김용덕 김용민 김용연 김용재 김용주 김용현 김용화 김용희 김우영 김우전 김우중 김원곤 김원국 김유경 김윤기 김윤철 김은경 김은숙 김은영 김은재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응곤 김응상 김익곤 김이향 김인선 김일성 김일태 김일환 김자천 김장권 김장연 김장윤 김장훈 김재경 김재광 김재기 김재옥 김재준 김재철 김재혁 김재형 김재호 김정 김정기 김정미 김정빈 김정수 김정순 김정원 김정은 김정인 김정현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종갑 김종갑 김종관 김종구 김종문 김종민 김종비 김종순 김종식 김종열 김종왕 김종찬

김중하 김중헌 김중혁 김주영 김주태 김주학 김주혜 김주호 김주환 김주희 김준모 김준석 김준현 김중수 김중호 김지선 김지숙 김지연 김진 김진경 김진관 김진백 김진섭 김진식 김진태 김진현 김창곤 김창연 김창영 김충오 김태석 김태순 김태평 김태환 김평년 김학경 김학성 김학신 김학진 김해중 김행선 김혁제 김현 김현미 김현삼 김현성 김현수 김현우 김현정 김현진 김현철 김현희 김형문 김형순 김형중 김혜경 김혜자 김혜중 김호식 김호영 김호일 김홍석 김홍진 김화태 김화정 김화곤 김희중 김희진 나병만 나선경 나선길 나영일 나영진·나영석 나원연 나은우 나정현 나종문 나황균 남궁진석 남상돈 남세현 남정현 남정강 노관숙 노금용 노금호 노승일 노업순 노인선 노정환 노제승 노춘봉 노형래 노희검 다물홍방 대전관광성결교회(기쁨이샘솟는학교) 대한치과의사협회 덕송스님 도규현 도재영 둔전교회 로즈팜약국 류덕용 류병욱 류수빈 류연석 류영준 류용성 류이근 류정민 류주현 류현재 류화자 류희웅 마경화 목주승 문경숙 문경순 문근영 문근재 문미영 문민 문상규 문석규 문성권 문성욱 문수정 문영식 문용식 문정숙 문정호 문주성 문주연 문춘열 문태환 문형국 문홍 민경기 민순옥 민여경 민총기 민향석 민현주 박강호 박경관 박경국 박경조 박경호 박계윤 박계윤 박공우 박귀순 박금희 박기호 박나정 박남수 박남용 박덕환 박동균 박동우 박동호 박만승 박명기 박우영 박문승 박문식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화 박민선 박병무 박병섭 박병수 박병우 박복영 박상용 박상욱 박상일 박상현 박상희 박석양 박선숙 박선우 박성기 박성림 박성준 박성찬 박세진 박소희 박수진 박순 박순길 박순성 박승호 박애스터 박연규 박영근 박영철 박예린 박예현 박오순 박용권 박용수 박용주 박원규 박유중 박윤선 박윤훈 박은영 박은하 박의용 박이현 박인곤 박인숙 박인순 박인준 박재규 박재묵 박재만 박재원 박재호 박정근 박정란 박정숙 박정식 박정우 박정자 박종균 박종근 박종길 박종록 박종섭 박종우 박종원 박종의 박종호 박주현 박주환 박지연박지용박지훈 박진우 박징자 박찬 박찬식 박태신 박태완 박표균 박향미 박현경 박현석 박현철 박현희 박형근 박형준 박형중 박혜영 박홍숙 박효정 박홍순 박홍열 박희순 박희운 반치범 밝은세상 방문겸 방석환 방양수 방용식 방재만 방준일 방철호 배광환 배대환 배덕호 배동용 배명용 배상수 배선규 배성희 배소영 배수현 배은혜 배인기 배향란 백낙서 백낙환 백도인 백찬현 변선애 변은경 봉미란 빙인섭 사랑의채널(갈릴리교회) 상록수녀원 서광호 서기원 서동규 서동화 서명호 서민원 서봉은 서성길 서여고2-4 서연우 서영학 서옥주 서장환 서정숙 서정희 서형교 서혜란 서희순 서희정 석동수 석민경 석상근 석왕사 석찬희 선봉규 선영숙 선정아 성낙준 성도경 성수희 성열찬 성완호 성외관 소병재 손경임 손경환 손광우 손덕현 손삼국 손승호 손영주 손진책 송경민 송두현 송명옥 송민규 송민선 송민철 송방섭 송상용 송상운 송시현 송영만 송용석 송운학 송유철 송은지 송인규 송재석 송재용 송재은 송재천 송정배 송정운 송정호 송지섭 송지영 송춘섭 송태규 송현태 송형규 송형욱 수원명성교회 수주대·현소윤 신강호 신기호 신기화 신기훈 신대걸 신동석 신동창 신동해 신민수 신범선 신삼복 신상문 신상완 신수익 신순임 신승무 신영교회 신용철 신용식 신은경 신준석 신진현 신진호 신현섭 신혜정 신희수 심경란 심말선 심재규 심재원 심재정 심조원 심하림 심현용 심현주 심현희 아차도교회 안귀녀 안규식 안남수 안동호 안동희 안명일·임참빈 안명화 안민식 안상화 안석희 안성근 안세봉 안승자 안약천 안영숙 안정덕 안정식 안정훈 안중금 안중출 안준상 안현성 안형재 안효진 암태초등2년 양경진 양관승 양규(양승봉) 양근성 양문수 양미아 양미화 양순봉 양순환 양어거스틴성 양영아 양우성 양윤정 양인보 양재원 양주용 양진선 양해준 양현석 양화식 양효정 양희석 어용철 엄기철 엄용수 여수무선초등5-2 염규현 염동현 염철 영농조합 법인부광축산 오경륜 오계환 오동일 오동훈 오두영 오만순 오명섭 오문택 오민준 오선연 오성수 오세호 오소영 오수경 오수형 오승현 오예슬 오웅성 오이경 오준희 오창욱 오태정 오형석 오혜근 오화선 옥용호 온강민 온참(이남희) 왕정찬 왕진호 우광택 우성호 우종호 우혜진 원동오 원종남 원형복 원효진 위대현 위은량 위은아 유가람 유근호 유남길 유명량 유명희 유미경 유방용 유병철 유선영 유성식 유승주 유승희 유시민 유연미 유원희 유윤숙 유은향 유인숙 유인용 유재욱 유재운(삼연물산) 유종석 유지수 유진상 유피에스시스템(주) 유하경 유향덕 유희권 육근범 윤건영 윤경임 윤광운 윤기중 윤기홍 윤덕호 윤도희 윤두형 윤미화 윤방원 윤병현 윤서영 윤석현 윤송림 윤시원 윤업석 윤여두 윤연숙 윤영복 윤용근 윤은주 윤자영 윤재희 윤정수 윤정현 윤정희 윤종식 윤종원 윤지현 윤지현 윤창빈 윤창섭 윤창원 윤태호(웨스턴테크닉) 윤혜경 윤혜정 윤효철 이강기 이강찬 이강희 이경래 이경미 이경재 이경진 이경희 이광훈 이국림 이규 이규문 이규설 이균 이근덕 이근태 이근형 이금수 이금원 이기원 이기태 이기호 이기화 이기훈 이길호 이남재 이남철 이대식 이대호 이덕형 이덕희 이도규 이도목 이도성 이도섭 이도영 이도우 이도원 이도현 이도호 이리나 이명수 이명천 이명환 이명희 이목희 이무철 이미래 이민성 이민영 이민하 이병 이병동 이병재 이병진 이병춘 이병학 이상업 이상엽 이상재

이상주 이상준 이상춘 이상학 이상호 이상훈 이석용 이석준 이석태 이선 이선규 이선장 이선정 이선주 이선호 이선화 이성기 이성만 이성민 이성수 이성주 이성철 이성호 이세민 이세준 이수구 이수명 이수정 이숙영 이숙자 이숙희 이승곤 이승만 이승열 이승영 이승우 이승현 이아미 이애희 이양재 이연하 이연주 이엽 이영내 이영동 이영례 이영목 이영선 이영수 이영숙 이영주 이영철 이영환 이영훈 이영희 이옥순 이용균 이용범 이용선 이용암 이용연 이용호 이우영 이운학 이원민 이원보 이원욱 이원현 이우덕 이윤관 이윤상 이윤환 이은 이은경 이은희 이용세 이인덕 이인배 이인수 이일선 이일양 이일영 이장백 이장원 이재학 이재희 이점윤 이정기 이정미 이정민 이정방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엽 이정주 이정철 이정택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권 이종규 이종명 이종무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성 이종안 이종열 이종주 이종학 이주철 이주형 이준동 이준희 이지영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하 이진권 이진섭 이진수 이진탁 이찬우 이찬웅 이창재 이창훈 이채린 이천권 이천환 이춘도 이춘삼 이충목이태주 이필원 이한 이한결 이한슬 이한택 이해동 · 김경애 이행숙 이현경 이현석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주 이현진 이형식 이해란 이해옥 이해원 이해정 이호영 이홍돈 이홍우이홍준 이황복 이효선 이효진 이희원 이희중 이희택 익산효양병원 인화회 임강택 임건재 임광호 임규윤 임금숙 임동권 임동선 임문희 임미옥 임미자 임병수 임병철 임상원 임선영 임성수 임세진 임영진 임옥현 임완민 임우섭 임원빈 임인기 임장원 임재민임 정애 임지훈 임창영 임춘수 임평학 임한섭 장광준 장길수 장문호 장미정 장민환 장범식 장사익 장선영 장수필 장순천 장영달 장영준 장오식 장용훈 장원석 장유경 장윤진 장재영 장지식 장춘용 장형수 장홍순 전극재 전기철 전달수 전미란 전범권 전병태 전병희 전석재 전성관 전성희 전애숙 전영미 전영일 전영일 전용완(LGCNS) 전용운 전일순 전정수 전정희 전종만 전중수 전진희 전찬민 전체남 전한순 전향이 전해린 전훈 정경옥 정경화 정경현 정계현 정광래 정광민 정광수 정극철 정근 정근영 정금나 정기석 정기운 정동춘 정동학 정동혁 정명준 정명환 정미영 정미혜 정민정 민 정병현 정상모 정상원 정상민 정성만 정성경 정성호 정성희 정수근 정수범 정수준 정수현 정수희 정승혜 정아름 정연실 · 송경평 정연웅 정연준 정연호 정영철 정원오 정은 정은미 정은진 정인규 정인성 정인준 정재민 정재원 정재환 정정욱 정정태 정종원 정종원 정중현 정중렬 정지원 정지현 정진영 정진철 정찬광 정창균 정창수 정천우 정태규 정태은 정한성 정해철 정해문 정해숙 정해인 정홍상 정희범 정희선 정희인 정효진 정희귀 제해성 제해준 조갑식 조기봉 · 세운 조기용 조대엽 조대현 조두형 조만용 조매경 조미숙 조봉관 조석희 조선아 조선영 조선옥 조성숙 조성성 조성탁 조성호 조성희 조승훈 조승희 조신행 조연희 조영란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원 조용진 조우영 조윤 조윤곤 조은상 조은희 조응원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종남 조주원 조준혁 조중식 조지현 조창식 조태현 조한민 조한범 조해기 조향미 조현 조현영 조현호 조형준 조형준 좋은터교회 주관수 주로미 주송순 주영식 주우현 주원섭 주재열 주현기 주희옥 중화기 지선경 지용수 지준호 지태석 지한규 진관스님 진상호 진양숙 진영배 차규화 차익수 차현애 차형철 채병철 채승화 채우혁 채현숙 천봉실 천연희 천정배 천현식 천환주 최경미 최경인 최광림 최귀철 최규원 최기천 최문석 최병륜 최병희 최부식 최사 최상훈최성범최세문최수진최속희최순옥 최승호 최승호 최양옥 최어진 최영림 최영자 최영진 최영희 최용식 최우정 최우진 최윤식 최윤실 최은서 최은준 최을규 최인엽 최재근 최재문 최재천 최정환 최정희 최중대 최중철 최준수 최준혁 최준훈 최지은 최진옥 최진원 최철영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주 최홍교 최효숙 최효인 최희송 최희은 추슬기 충훈고등학교 케이지전력(주) 케이지전력(주) 탁도웅 탁병섭 푸른초장교회 풀무학교 하미정 하성환 하세연 하승창 하아시엘 하정현 하종영 하태성 한강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자원복지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복희 한다현 한덕섭 한덕희 한동휘 한동희 한두희 한상각 한상균 한상덕 한상만 한상진 한상철 한성희 한순호 한승상 한승엽 한영숙 한예린 한원택 한윤구 한은혜 한인숙 한정화 한중수 한중현 한지섭 한진옥 한창균 한창현 한하니 한희진 함기문 함영준 함용운 함택영 해마루 행복한푸드 허경기 허귀석 허남순 허설 허원중 허은이 허응태 허인웅 허일 허정 허준웅 현관송 현순복 현윤숙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정희 현중스님 현중윤 호영진 홍구표 홍기호 홍란희 홍민기 홍명석 홍미옥 홍상영 홍상운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숙희 홍순옥 홍우영 홍의 홍재삼 홍제표 홍준석 홍현기 홍희표 환성스님 황계연 황권주 황금철 황대철 황명필 황병규 황복희 · 김정미 황성우 황성주 황승옥 황영승 황의중 황의천 황인선 황재성 황재택 황중철 황지중 황창규 황현택